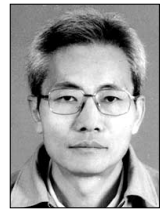


나의 수행법

전근홍

초등학교시절 병소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병에 걸려서 앓다가 죽었다. 갑작스러운 친구의 죽음을 접하자, 나도 언젠가는 죽게 된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어찌된 일인지 그날 이후부터 죽는다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다.



을 때, 문득 '나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데, 배가 가고오고 한다'는 생각이 확 느껴졌다. 1주일 철야정진이 내게 상당히 도움이 됐다.

이후, 난 끊임없이 '죽으면 어찌될까' 하는 생각이 잡겼다.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무엇을 하던지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러던 중 대학 시절 보리선원에서 만난 백봉 김기추 선생님이 '이 몸품이 있다 할지라도 성품이 없어. 내가 보고 듣는 것은 눈이나 귀라는 기관을 통해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이 보고 듣는 것이야.

그날 이후 4-5년을 토요일 철야정진과 1주일 철야정진을 빠짐없이 참석했다. 그러다 어느 1주일 철야정진 중이었다. 그때는 앉기만 했으면 화두가 잘 들렸다. 그 당시 백봉 선생님에게 받은 '동산수상행(東山水上行)'이란 화두를 가지고 참구하고 있었는데, 그날은 앉기만 했으면 금세 몸을 잊어버리고 오직 화두만 들렸다.

다시 말해서 허공으로서 내가

그러자 어느 순간 화두가 딱

친구 갑자기 죽은 후 '죽음' 깊이 고민 김기추 선생 만나 화두공진 자리 맛봐

하는 것'라는 설법을 듣는 순간, 이제껏 나는 이 몸품이로서의 나로만 단지 생각해왔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를 풀 수 없었다는 것을 알았다.

죽어지면서 어떠한 실감을 경험할 수 있었다. 그때에 심경을 비유해본다면, 포항제철 같은 커다란 공장에서 엄청나게 큰 기계들이 돌아가고, 그 소음에 사람팔 소리조차 들을 수 없다고 정돈으로 갑자기 기계가 딱 멈췄을 때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적적함이라고나 할까.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저녁과 토요일마다 철야정진에 계속 참석했다. 몇 개월이 지난 그해 여름, 선원대중들이 웅인 동두사에서 1주일 철야정진을 했다. 그간 참선을 해 본적이 없는 나로서는 화두를 들어보아도 어찌나 잠이 오는지 나중에는 화두가 들리기 는커녕 지금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비몽사몽 상태가 계속 됐다. 또 계속 며칠동안 한번도 눈을 못하니 허리는 끊어지게 아팠다.

아무튼 그리고 나자 자신감이 딱 생겨 화두에 대한 '예리한 칼을 들고 쫓고 쫓을 새 갈 곳 없는 '동산수상행'이 내 집안 소식을 토하는구나. 산은 푸르고 물은 맑은데 할 일도 많았던 내 집안 일이 하나도 할 일없는 그대로구나'라는 답을 달아 선생님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3-4일이 지나자 조금씩 정신이 차려지고 마음이 점점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다. 정신도 조금씩 맑아지고 몸도 차차 나아지자 어느 틈에 일주일 철야정진이 지나 가버렸다. 그렇게 1주일 철야정진을 마치고, 도반들과 절 근처에 있는 저수지에 낚시를 가게 됐다. 얼마간 노를 저어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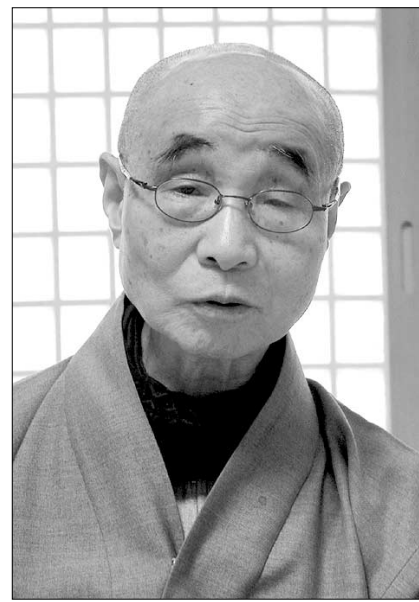
그 글을 보시자 선생님께서는 "그렇다. 이제부터 너는 공부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됐다"고 하시고 대중 앞에 공표를 하셨다. 그날 그 실감을 경험한 이후, 지금까지도 토요일과 1주일철야정진은 내 불교공부의 훌륭한 방편이 되고 있다.

■ 보림회 총무

자유 스님이 말하는 선수행법

간화나 분별 버리고 나를 돌이켜 보라

간화선과 목조선, 같은가 다른가?



자유 스님

▲간화에서는 목조를 '삿된 선(禪)'이라 하고, 목조선에서는 간화를 '깨달음을 기다리는 선(待悟禪)'이라 비판합니다. 간화선과 목조선은 어떻게 다를까요?

-사실 두 개 다 맞다고 틀리기도 하다. 간화의 입장에서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반박도 맞다. 또 '본래부터 깨달은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는데(照), 고요히 좌선수행으로 일관하면 된다(默)'

'화두일념·현성공안'은 수행방편

▲간화선은 '화두일념'을 강조합니다. 반면 목조선에서는 '현성공안'을 중시합니다. 그럼 공안관(公案觀)에서 차이점이 드러나게 되는데, 어떻게 다를까요?

-옛 선사들은 공안이라고 하지 않았다. 모를 때 정답을 알려줬다. 듣는 사람이 정답에 이르지 못했을 때, 선사가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공안을 줬다. 누가 오든 차별하지 않고 자기 깨진 바 있는 그대로의 공안을 보여 준 것이다. 다만 듣는 사람이 알려주는 사람과 마음이 같지 않아서 의문이 불었다. 그래서 묻는 사람이 자기 혼자서 가만히 무슨 뜻이 있는가를 깊이 파고든 것이다. 이를 사랑분별 해서는 안 된다. 끝도 없이 의심하다보면, 생

각이 없어진다. 이렇게 하는 것이 화두공부다. 그래서 목조의 현성공안이든 간화의 화두일념이든 어떤 공안이 낫다거나 나쁘다고 말할 수 없다. ▲간화든 목조선 '본래성불'이란 측면에서 '깨달음의 내용'이 같다는 의미인데, 그럼 수행방편의 차이 때문에 목조선과 간화가 다른 것입니까? -지금은 간화도 목조선도 해서 가지가 갈라져 있다. 불법은 자기가 자기를 찾는 것인데,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간화도 목조선도 따질 필요가 없다. 깨달음은 심심불심(是佛)을 아는 것이다. 즉 '마음이 부처'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그런데 사랑분별로 이를 알려주고, 이 사랑분별은 '유지(有知)의 지(知)'다. 그건 깨달음이 아니다. 머릿속에서 알고 있을 뿐이다. 깨달음이 사랑분별에 가려 있어, 이를 끊게 하는 것이 화두공부이다. 알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 가지고 유지의 지를 '무지(無知)의 지(知)'로 바꿨을 때, 자기 앞에서 전개되는 우주만물이 진리 아닌 것이 없고, 법원이 아닌 것이 없게 계합된다. 이것이 목조선의 현성공안이다. 반면 간화는 화두일념이라는 방편으로 본래성불을 이루려는 수행법이다. 때문에 간화로 해야 할지 목조선로 해야 할지 고민의 문제가 나온다. 깨달음을 위한 방편들이 생기기 되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는 명언이 있다. 자기 마음이다. 선은 내가 내 자신을 알아차리면 끝이다. 중요한 것은, 성불의

▲목조선은 좌선을 강조합니다. 그럼 일할 때 걸을 때는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하나요? -거울은 항상 깨끗한 색깔만 비추지 않는다. 색깔이 더럽든 그렇지 않든 관계가 없다. 거울은 온갖 물건과 색깔을 비추지만, 그 속에 남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는 마음을 비우는 것과 같다. 마음을 확인하려면, 서있든 앉아

깨달음의 내용은 본래성불

있든 선 아닌 것이 없다. 즉 거울 그 자체는 좋고 나쁜 것 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비춘다. 있는 그대로 비추는 것처럼, 일할 때는 일하는 그 뿐이고, 걸을 때는 걸을 뿐이다.

▲요즘 들어 형식화·공식화된 공인들이 점차 재가불자들에게는 간절한 의식을 일으키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좌선 중심의 목조선은 비판했던 간화선이 오히려 좌선주의에 빠졌다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는 데요? -좌선은 목조선이 할 모습을 들여다보는 행법이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모습은 없다. 일할 때는 바로 일을, 놀 때는 노는 모습을, 거울은 우는 모습을 들여다 볼 뿐이다. 마치 거울이 그렇다. 거울은 특정 색깔에만 비추지 않고 모든 색깔을 비춘다. 거울 자체의 작용을 알아차려야 한다.

의심없이 앉아있으면 못 깨우쳐

원력은 바로 지지인심에 있다. 또 이를 통한 견성성불에 있다. 다른 방법이 필요 없다. 단지 방편에 따라 목조선이 필요하면 목조선, 간화가 필요하면 간화를 할 뿐이다.

▲목조선에서는 '회광반조'를 중시합니다. 목조선의 수행요체는 무엇입니까?

-욕심을 부려 싸움을 했다고 하자. 하나는 약으로 하나는 선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 근본은 똑 같다. 하나는 서두르고, 하나는 거칠 뿐이다. 싸움을 하다가도 '이것이 아니다. 또 무엇 때문에 이러는가'를 돌이켜 깨치면 그것이 회광반조(廻光返照)다. 아무리 간접하게 간화선을 하더라도 그것의 근본을 돌이켜 보지 못하면, 천년만년이 가도 무명(無明)에 살 뿐이다. 눈이든 귀든 목목히 마음을 관조하면서 돌이키면, 모두가 자기라는 것을 깨치게 된다. 근본을 살펴보는 것이 회광반조다.

있다.

그럼, 선수행법의 양태 산맥을 이룬 간화선과 목조선은 같은가 아니면 다른가? 1949년 부산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이후, 전국의 제방선원에서 수십 인구를 성만하고 남양주 회개선원(선원장 상광)에서 재가불자에게 선수행법을 17년째 지도하고 있는 자유 스님(범어사 조실)에게 1월 16일, 대중법문에 앞서 여쭙는다.

로 다가올 수 있을 텐데요. 목조선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일본 조동종의 목조선에는 아무 것도 하지 말라 했다. 즉 가만히 앉아만 있으라 했다. 1시간 앉아 있으면 1시간 부처님이고, 10시간 앉아 있으면 10시간 부처님이 된다고 했다. 이를 '지관타좌(只管打坐)'라 했다. 깨달음이니 뭐니 일체 구하려는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의미다. 도원 선사는 깨달음의 심정을 '실체 보니 있는 그대로'라고 말했다. 그래서 구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귀를 못 알아서 문제다. 실제 깨닫고 보면, 구하지 말라는 그 말은 딱 맞는 가르침이다. 그러나 재가불자들은 본인이 확실하게 알고 골똘히 깊이 깊이 알면, 서산대사가 훌륭히 답하는 소리에 문득 깨치게 된 것처럼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때문에 직접 실감을 해야 한다. 직접 구름을 헤치고 푸른빛을 열어봐야 한다. 열어보기 전에 구름 밖에 빛이 푸르고 맑다고 해봐도 소용이 없다. 열어보지 않으면 어둠 캄캄한 구름 밑에서 빛을 말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무엇보다도 간화선이란 목조선이란 깨달음의 내용은 본래성불이라는 것을 잠시도 잊어서 안 된다.

스님은 "목조선 간화나 하는 분별심을 버리고 회광반조하라"라고 강조했다. 목조선이든 간화선이든 '본래성불'을 깨닫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선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목조선 간화나 하며 수행법의 우열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내 마음이 부처' 알아차리면 끝나 특히 스님은 선수행이 '마음이 부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그 요체가 있다고 설명했다. 선은 내가 내 자신 속의 불성을 알아차리게 하면 그 뿐이라는 설명이다. 즉 선은 본래 마음자리를 깨닫는 것이고, 깨닫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속에 불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목조선 간화나 수행법은 마음의 정체를 확인하는 것인 만큼,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이 '해도 한 바가 없이' 물들지 않고 생활하라고 당부했다.

남양주=김철우 기자

Advertisement for '개천구지(開天救地)... 벽도구인(闢道救人)'. Includes text about the '천기도법(天氣道法)' and contact information for '대韓彌勒創運會 儒佛仙天氣道場'.